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또 대피소?”…오락가락 행정에 주민 불만 폭발

이들만에 대피소 운영 종료…주민 귀가 후 피해 접수 ↑
하남다누리센터 재운영…박병구 청장 “임시대피 권장”

“어제 대피소 운영이 종료됐다는 소식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기침과 두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젠 누가 보상에 주나요?”

광주 광산구에 선부르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대피소 운영을 종료했다가 2차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산정동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 설치됐던 주민 임시대피소의 운영을 종료하고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던 377가구 249명을 귀가시켰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는 이른바 ‘도깨비불’로 불리는 잔불이 계속 되살아나며 심한 연기와 악취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공장 현장에는 타이어 원료인 생 고무 등에 불이 붙은 잔불 더미가 200여개 이상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하루 종일 매캐한 연기가 이어지며 집으로 돌아온 상당수 주민이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전날 오전까지 광산구가 집계한 주민 피해는 115건(인적 피해 5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1236건(인적 피해 603건)으로 폭증했다.

실제 19일 오후부터 화재 현장 인근과 인접한 서라야파트 1·2차 등 거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천막 집이나 여관을 전전해야 했다.

이러한 불만은 20일 광주 광산구 송정보건지소 1층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광주



광주 광산구는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해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2차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다.

공장 화재사고 주민피해현황 접수처에서 터져 나왔다.

A씨(57)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어젯밤 내내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속이 메스꺼워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인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B씨(29)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론 어린 동생까지

기침하고 두통을 호소해 어제 대피소를 찾았다가 헛걸음했다”면서 “화재 현장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억울한데, 행정당국까지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실제 접수 현장에는 고령의 노인부터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피해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기침,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럼증, 속 울렁거림 등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산구는 운영 종료를 선언했던 주민대피소를 20일 오후 7시계부터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무기한이며, 대피소는 텐트(헬터) 70개가 설치된다. 보건 의료·식자 지원 등도 이뤄진다.

이에 대해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어제 시민들을 다 복귀시켰는데 오후에 (화재 진화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었다”며 “기압도 낮아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도 심해서 시민들이 두통 등 여러 고통을 호소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상황 악화로 대피소를 즉각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임시 대피를 권장하며, 숙박업소 영수증을 청구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호타이어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5년간 회사 돈 7억 횡령 40대 징역 3년

개인 채무·유형비 탕진

5년간 7억원이 넘는 회사 대금을 횡령한 40대 주류업체 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주류업체에 근무한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대금 중 7억1527만원을 가로챘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6개 거래처에서 1억원 이

상을 현금으로 받았다. 또 31개 거래처에서는 6억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챙겼다.

횡령한 금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유형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 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6월 3일 꼭! 투표합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월 3일 꼭! 투표 합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대선후보 벽보·현수막 훼손 안돼”…경찰 수사

남구 월산동서 첫 검거…광주·전남 15건 적발

광주·전남 지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현수막이 연이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사례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선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해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주에는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으로 총 6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18일에는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서구 유덕동에서도 대선 후보 안내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6건 모두 지역이 분산돼 있고 특정 후

보를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총 9건이 수사 중이다. 전남 역시 일부 후보 혹은 정당을 겨냥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즉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훼손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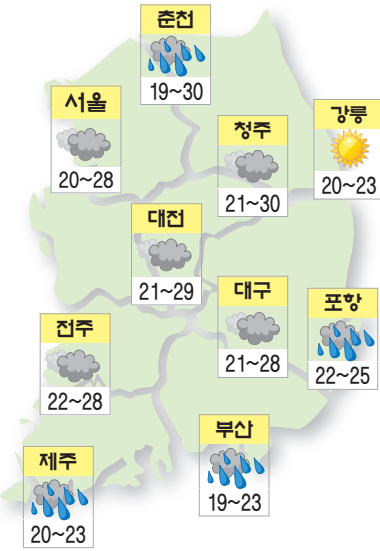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SOCIETY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25 달출 01:35
예전 19:34 달진 12:51



광주		22~26
목포		19~25
여수		19~22
순천		19~24
구례		21~26
광주		20~24
임도		18~24
전남		15~19
고흥		19~24
진도		18~24

목포	밀물(고)	08:12 / 20:37
	썰물(저)	00:48 / 14:01
여수	밀물(고)	03:18 / 15:59
	썰물(저)	09:59 / 21:49

주류 참고서 술 흡진 40대

만년필 ○…가계 주류 참고서 수십여병의 술을 흡진 달아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돼.

20일 광주 서부경찰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술집 주류창고에서 소주, 맥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술을 흡진 혐의를 받아.

A씨의 범행은 주류 창고에서 재고가 비는 것을 의심한 피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덮이 잡혀. 경찰은 이달 17일 해당 가게를 방문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의 총 12회에 걸친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고.

윤용성 기자 yo1404@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VER 나코스

인쇄·디자인·제본·쇄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 구름다리 옆

062) 376-5425